

상승성 (相乘性)
낙농가 회원과
「월간 낙농육우」의



황영구
본회 고문
(2, 6대 회장)

조

물주의 창조섭리에 따르는 자연의 분신인 식량을 생산하는 농축산업중 낙농은 그 대상인 젖소의 개량도가 생산능력에 있어서 증산지수를 실질적으로 산정하였을 때 원시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의 발달과정에서 지수가 가장높은 첨단산업으로서 전체의 완전식품인 우유와 쇠고기를 생산하여 낙농가의 수익성과 국민에게 품질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낙농의 우유는 처리가공을 하여야 식품으로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특수한 생리 때문에 처리가공과정의 제 2차 산업과 유통과정의 제 3차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젖소 사육의 역사는 약 100여년이라 그 기간중 일제의 식민통치, 8·15해방, 국토의 남북분단 그리고 6·25전쟁 등으로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낙농업의 실상은 정부나 국민의 관심 밖이었다.

1961년 5·16군사혁명 후 중농정책의 일환으로 외환사정이 최저의 수준일 시기에 실무진으로는 상상도 못하였던 정부보유외화로 젖소를 도입하면서 서울우유의 공장이전 증축과 캐나다, 세계은행의 재정차관 대일청구권 자금 등으로 젖소 도입과 사기업의 유가공장건설로 낙농업의 기초를 구축하면서 낙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현재와 같은 낙농업의 위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낙농업의 과거는 평탄하지 만은 않았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체결후 지구는 하나의 광장이요 세계는 국경이 없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의 급격한 변화의 국제화 시대에서 인류의 역사는 항상 선진국의 제도와 강자의 패권주의가 승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요즈음과 같은 무한경쟁시대로의 세계화의 무역자유화의 물결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일 것이다.

인류상존의 절대조건인 식량자급에 있어 세계의 석학들은 그 비율이 50%이하로 떨어지면 식량을 생산하는 농축업은 망한다고 하였으며 그 망농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망국을 초래한다고 한다. 그러한 석학들의 충성어린 우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이 30%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낙농업의 장래에 정



육종개량의 실무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하는 업무와 낙농가의 실무기술의 체질화에 국제적인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는 업무의 주관기관으로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월간 낙농육우」 발간의 20주년을 기념으로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지난날의 실적이 더하여 회장을 중심으로 임직원의 정직한 양심과 성실한 이성을 가지고 더욱 발전하여 우리나라 낙농업의 선구자로서 서광이 같이 하기를 바란다.

부는 정치, 낙농가는 경영면에서 경쟁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낙농업의 국제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는 젖소의 유전적인 생산 능력과 낙농가의 학문을 기초로 하는 과학적인 실무기술의 체질화이다.

젖소의 육종개량의 유전학적 원리 기술인 혈통등록관리와 외모심사점수를 기준으로 우열부위를 서로 보완하는 선발 도태에 의한 교배의 실천과 생산능력의 후대검정제도를 국가적으로 확대하

여 우수한 종모우를 선정하는 등의 혈통등록, 외모심사 후대능력 검정의 3대요소의 기관별 업무를 민주화, 지방화, 경제논리에 따라 법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한 육종개량의 실무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하는 업무와 낙농가의 실무기술의 체질화에 국제적인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는 업무의 주관기관으로 법인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월간 낙농육우」 발간의 20주년을 기념으로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지난날의

실적이 더하여 회장을 중심으로 임직원의 정직한 양심과 성실한 이성을 가지고 더욱 발전하여 우리나라 낙농업의 선구자로서 서광이 같이 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여 낙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의적인 성공을 기하고 있는 자조금제도의 장종의 발전과 함께 「월간 낙농육우」의 충실한 내용으로 낙농업을 천직으로 믿고 불철주야 젖소와 함께 근검진성(勤檢眞誠)으로 노력하는 낙농가들이 애독하는 월간회보 지로의 위치를 확보하여서 국민의 생존을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익성과 희생정신으로 헌신하는 역군이라는 굳은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사회에 과시하여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진정한 낙농가의 위치를 정립하여야 한다.

끝으로 「월간 낙농육우」의 영향으로 국내의 축산업의 다른 법인체의 반근착절(盤根錯節)과 계명구도(鷄鳴狗盜)의 집단의 시범이 되어서 공동발전의 성과를 이룩하였으면 한다.

